

BEYOND 동아!

학과 · 대학을 넘어 (Boundaryless)

대학시절을 넘어 (Entire Life)

한계를 넘어 (Y-Why-not)

강의실을 넘어 (On&off)

규제를 넘어 (New Ground)

타율을 넘어 (Design By Self)



승학캠퍼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 3가)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www.donga.ac.kr

블로그 blog.naver.com/donga_pr_bot

페이스북 facebook.com/dongauniv

인스타그램 instagram.com/donga_univ

유튜브 youtube.com/c/dongauniversity1946

DONG-A UNIVERSITY since 1946

동아는 지금

114번째 소식지



Dong-A University Newsletter Vol. 114

동아는 지금

동아대학

Hot News 주요 행사 · 인물 동정

Issue Focus 학기 주요 소식

Dong-A People 동아인 인터뷰

Happy Donation 발전기금 소식



20만 동문과워 폭발

동아 100년 동행 '감사와 전진의 밤'

동아인의 남다른 패기와 역동성을 표현하는 '파랑'은 개교 74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더욱 깊이 물들어 가고, 정·재계, 법조, 문화, 체육 등 전 분야에서 한국 사회를 넘어 세계를 이끌고 있는 막강한 동문파워는 20만 동아인의 작은 별들을 하나로 연결하며 거대하고 찬란한 동아의 힘으로 결집한다.

동아는 지금 제호 소개

동아대학교가 설립되기 10년 전 1937년 프랑스는 아르데코(art deco) 기를 맞고 있었다. 그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서체로 인정받은 「페노(Peignot)」는 1937년 파리 국제 박람회의 공식 서체로 지정된 오랜 역사의 서체로, 일정한 굵기 대신 획의 차이가 분명한 휴머니스트 산세리프에 가까운 서체이다.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진 페노 서체의 특징을 한글에 접목해 「동아는 지금」의 오리지널 제호를 개발했다. 동아대학교의 오랜 역사를 담으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녹여냈다. (제작: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 김재홍)

동아대학교 소식지(통권 제114호)

발행일 2020년 2월
 발행인 한석정
 발행처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하단동)
 T.051)200-6042~3 F.051)200-6015
 www.donga.ac.kr / www.fund.donga.ac.kr
 디자인 대훈기획 051)898-0330

동아대학교, 그리고 동아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14번째 소식지

Hot News	04	'동아 100년 동행, 감사와 전진의 밤'	10	'드론 글로벌 허브센터' 구축 협약	
	05	'함께 뛰자, 동아!' 마라톤 대회 개최	11	석당박물관 특별전·나들이전 개최	
	06	'학교법인 동아학숙 설립 및 동아대학교 개교 73주년 기념식' 열려	12	검사 2명·로클럭 1명·법원행정고시 3명 합격	
	07	총동문회 창립 70주년 행사 잇따라	13	교육부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 선정	
	08	동문기업인 등에게 명예박사 학위 수여	14	교직원 수상 및 연구성과	
	09	승효상 석좌교수 오스트리아 정부 훈장 수상	15	학생 대·내외 수상	
	Issue Focus	16	표범의 기세로 이끈 74년 체육사, 동아대의 저력을 보다		
		20	진화하는 융합·통섭형 인재, 교육 혁신으로 꽃피다		
		Dong-A People	26	정한식 우성종합건설 대표, 이영미 이사 동문 부부 _ 우리에게 모교는 인생의 '화양연화(花樣年華)'	
28	전미라 건강과학대 학장(식품영양학과 교수) _ 사람을 위한 과학으로 4차 산업의 꽃을 피워내다				
30	임성준 학생(경영학과 4), 김민성 학생(건축공학과 4) _ DECO, 동아의 열정을 모으다				
Happy Donation	32	발전기금·기부현황	38	'후원의 집' 소개	
	40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소개	43	기부 및 납부방법 안내	





▲ 현장에서 동문들의 발전기금 약정이 붓물을 이룬 '동아 100년 동행 감사와 전진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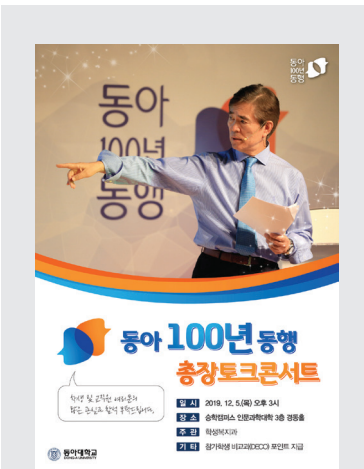


▲ 개교 70주년이었던 지난 2016년부터 4년 연속 열린 '함께 뛰자, 동아!' 마라톤 대회



1 개교 100주년 대비 학교사랑 캠페인 '동아 100년 동행, 감사와 전진의 밤'

지난해 10월 개교 100주년 대비 학교사랑 캠페인 '동아 100년 동행, 감사와 전진의 밤'(이하 '감사와 전진의 밤') 행사가 개최됐다. 이 행사는 2018년 3월 말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발전위원회 발족식'을 가진 이후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이 150억 원 상당의 넥센타이어 주식을 기부하는 등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에 동참해준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더 힘찬 '전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은 개교 100주년을 앞둔 동아대가 '지역을 품고 세계와 함께 하는 명문사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펼쳐온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이다. 이 행사엔 한석정 총장과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신정택(세운철강 회장) 총동문회장 등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정순택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김재진 경동건설(주) 회장·조무제 전 대법관(석좌교수)·김두관 국회의원·최인호 국회의원·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장·김영식 세자녀출산지원재단 이사장·염기섭 한진물산(주) 대표이사·최영주 (주)팬코 회장·최삼섭 (주)대원플러스건설 회장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 총장은 "동아대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를 알리며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되살리고 미래형 교육 개혁으로 각종 정부사업도 휩쓸며 저력을 발휘했다"며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을 향한 동문들과 교직원들의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미래교육관 건립'도 가능해졌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알렸다. 또 "교육혁신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룬 지금 동아대의 미래 비전은 '연구에 대한 획기적 투자와 혁신'이라고 강조하며 "바이오 빅데이터 분야 최우수 교원 확보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을 향한 동문들과 교직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미래교육관 건립'도 가능해진 시점인 지난해 12월 세 번째 콘서트 '융합의 힘'이 승학캠퍼스 경동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한석정 총장은 '교육 및 연구기금 확충의 중요성과 융합의 힘을 강조하며 성공적으로 콘서트를 이끌었다. 한 총장의 토크콘서트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열린 '실패의 미학'과 '나눔의 미학'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학생들과 적극적인 스킨십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2 대학 - 지역사회 잇는 화합의 장 '함께 뛰자, 동아!' 마라톤 대회

개교 73주년 기념 '함께 뛰자, 동아!' 마라톤 대회가 지난해 10월 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 등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개교기념일을 맞아 올해로 4년째 개최되고 있는 이 대회는 코스 기획부터 경기운영, 행사장 조성까지 모든 과정을 학교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준비, 대학과 지역사회를 잇는 '화합의 장'으로 펼쳐졌다. 승학캠퍼스 정문을 출발해 강변대로를 따라 을숙도 운동장, 승학캠퍼스 '뉴턴 공원'으로 돌아오는 7.3km 코스로 진행된 이날 마라톤에는 한석정 총장과 김병남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전원석 사하구의회의장, 이봉균 부산사하경찰서장, 방성빈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 등 내빈, 시민이 참가했다. 지난 1회 때부터 참가자들과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한 총장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마라톤을 완주하는 열정이 바로 동아대 정신"이라며 "개교 73주년이란 역사를 달려온 만큼 앞으로 미래를 향한 100년 동행도 모두와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시상은 남녀 청년부와 일반부로 나뉘 이뤄진 가운데, 청년부 우승은 박수지(27분 18초)·박홍석(23분 53초), 일반부 우승은 이민주(27분 02초)·천상오(28분 47초) 씨가 차지했다. 여자 청년부 우승자 박수지(29세) 씨는 "학생들과 어울려 마라톤 코스를 뛰며 오랜만에 즐겁고 활기찬 시간을 보냈다"며 "다음에 다시 참여하고 싶은 정도로 만족스런 행사였고, 앞으로도 동아대가 시민들과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동아대 개교 73주년과 개교기념일(11월 1일)을 상징하는 73등인 황계혁 씨와 111등 최영재 씨가 특별상의 주인공이 됐으며, 행운상 수상자에게도 백화점 상품권이 주어졌다.



마라톤대회 현장에서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스포츠 마사지와 페이스페인팅 프리마켓, 사진인화 서비스 등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로 마련돼 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동아대는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동아리 중심의 봉사단 '동아 재능기부봉사단'을 발족, 지역사회 다양한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의 요청에 따라 직접 기획한 전시·공연과 교육, 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 자랑스러운 동아인상을 수상한 배광호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왼쪽 위), 석당학술상 수상자 김종식, 이정관 교수, 기념사를 하고 있는 한석정 총장



3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석당학술상', '공로상' 등 시상 '학교법인 동아학숙 설립 및 동아대학교 개교 73주년 기념식'

'학교법인 동아학숙 설립 및 동아대학교 개교 73주년 기념식'이 지난해 10월 승학캠퍼스 리인홀에서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석정 총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들의 노력으로 동아대학교 에너지가 꿈틀대고 있고 신정택 총동문회장님과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님을 필두로 한 동문들의 후원을 토대로 미래교육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학교는 이제 특성화 분야인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택 총동문회장은 축사에서 "한국 사회 발전과 맥이 닿아 있는 동아대학교 역사에 함께 해온 20만 동문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으로 동아의 명예가 빛나고 있다"며 "모교가 가진 저력과 여러분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배광호 부산환경공단 이사장과 강석주 통영시장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모교를 빛낸 동문에게 수여되는 '자랑스러운 동아인상'의 영광을 안았다. 탁월한 연구업적을 보인 교원에게 시상하는 석당학술상은 김종식 화학과 교수와 이정관 응용생물공학과 교수에게 돌아갔다. 김용의(법학전문대학원)·권명아(한국어문학과)·김재일(신소재공학과) 교수는 각각 '교육부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청년·중장년 창업패키지사업' 유치에 기여,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미래를 빛낼 재학생에게 수여되는 '동아미래인재상'은 윤주영(전자공학과 4) 학생이 차지했다. 윤 학생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스마트팩토리부문 본선에 진출했고 SoC Robot War AI 알고리즘 개발 대회 태권로봇 부문 예선 우승(대전시장상)과 국제대회 최종 우승(국무총리상) 등 맹활약했다. 이밖에 이길원 국제학과 교수 등 6명의 교원과 박진호 한림생활관장 등 12명의 직원이 30년 근속상을, 김용 신소재물리학과 교수 등 8명의 교원이 20년 근속상을 받았다. 이창훈(관리과)·권영준(교무과)·박철홍(기획과)·고유석(경리과)·김영근(종합농장)·이혜숙(예술체육대학 행정지원실) 직원 등 6명은 '모범직원상'을 받았으며 김진석(경리과)·변성호(법무·감사실)·박병규(총무과)·양주순(한림생활관)·김상현(기획과)·김민원(학사관리과)·진윤홍(교육혁신센터) 직원 등 7명은 '올해의 직원상'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장기화 실장은 특별상을 받았다.



▲ 총동문회 창립 70주년 '정기총회 및 동아인의 밤' 행사와 '동문 예술작품전'

4 20만 동문 파워 폭발 총동문회 창립 70주년 행사 잇따라

동아대 총동문회(회장 신정택) 주최로 '총동문회 창립 70주년 정기총회 및 동아인의 밤' 행사가 지난해 12월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엔 신정택 총동문회장,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 김재진 경동건설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대표, 임수복 강림CSP 회장, 윤준호 국회의원 등 1,20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석정 총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등을 통해 많은 동문들이 발전기금을 쾌척하시며 엄청난 동문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 2019년은 동아대학교 20만 동문의 단합을 체감한 감동의 한 해였다"며 "동문들의 유례없는 단합을 통해 반드시 화려한 옛 명성을 되찾고 대학 구성원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대 총동문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9월 동아대 예술대학 출신 동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창립 70주년 기념 예술작품전'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작품전에는 전·현직 교수, 중·고등학교 교사, 전업작가, 미술협회, 화랑, 갤러리 대표 등 전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120여 명의 동문 작가들이 참여해 서양화와 한국화·섬유미술·조각·목가구·도자예술 등 다채로운 분야의 작품을 전시했다.

5 고현석 육군 준장 진급 동문 역사상 세 번째 장군 탄생

동아대 산업공학과 87학번이자 학군단(ROTC) 29기 출신인 고현석 대령이 육군 준장으로 진급, 동문 역사상 세 번째 장군이 탄생했다. 고 장군은 "대한민국과 육군이 제게 줬던 기회를 주고 더 큰 역할을 하라고 장군이란 영예를 안겨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새로운 계급장과 직책이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군이 잠시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군복을 벗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분골쇄신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동아대는 지난 2009년 첫 장군(정종민 예비역 소장, 토목공학과 78학번, 학군 20기)을 배출한 데 이어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대장, 교육학과 81학번, 학군 23기), 고현석 장군까지 3명의 장성을 배출하게 됐으며, 올해 임관한 57기 소위까지 전국 각지에서 수 백여 명의 동아대 출신 장교가 국방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고현석 육군 준장
산업공학과 87학번·학군단 29기



▲ 지역 산업과 국가 발전,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한 동문 기업인과 인도네시아 유력 정치인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동아대



6 장복만 회장·최삼섭 회장·리드완 카밀 주지사에게 명예박사 학위 수여

동아대는 동문 기업인 장복만 (주)동원개발 회장에게 지난해 9월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20대에 대한제국 입사 후 꼼꼼하고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으로 경리·영업·자재 등 3개 과장직을 동시에 맡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신홍철재상사에서 경 영능력을 발휘한 후 지난 1975년 동원주택을 설립, 특유의 정직하고 성실한 경영철학을 갖고 지금의 동원개발로 성장시켰다.

동문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건설 회장 또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4년생으로 동아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등을 이수한 최 회장은 지난 1999년부터 건설업에 종사하며 80층 규모의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를 비롯한 다수의 고품격 주택단지를 건설, 부산의 경관과 주거 문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평가를 받았다. 모범적인 경영활동을 펼쳐온 최 회장은 지난 2006년 부산상공회의소 최연소 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2015년부터 부회장으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2011 주택 건설 의 날 기념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해 '2013년 부산산업대상 봉사부문 대상', 2014년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 레드닷(Red-dot) 디자인 건설부문 본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모하마드 리드완 카밀(Mochamad Ridwan Kamil)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주지사에게도 박사 학위가 수여됐다. 인도네시아 건축 및 도시 문화의 혁신적 성장에 헌신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높이 사 명예행정학박사 학위를 전달한 것이다. 모하마드 리드완 카밀 주지사는 반둥기술대학(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레이크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반둥시장을 역임한 후 지난해 제15대 서부 자바 주지사에 당선됐다.

▼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장복만 회장



▼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최삼섭 회장



▼ 명예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은 리드완 카밀 주지사



▲ 승효상 교수가 설계한 수목원인 경북 군위군 '사유원(思惟園)'에서 진행된 훈장 수여식

7 승효상 건축학과 석좌교수 오스트리아 '학술예술 1급 십자훈장' 수상

세계적 건축가이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승효상 건축학과 석좌교수는 지난해 10월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학술예술 1급 십자훈장(Cross of Honour for Science and Art, First Class)'을 받았다. 과학·경제·예술 등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오스트리아인 또는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이 훈장을 승 석좌교수는 아시아인 최초로 받는 영광을 안았다. 승 석좌교수는 공간의 채움보다는 비움을 추구하는 건축 철학을 바탕으로 '수출당'과 '파주출판단지', '오스트리아 한인문화회관(Korea kulturhaus)' 등 다양한 건축 작품과 국제 전시회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또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과 아시아·아메리카 지역 건축에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돼 수훈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 석좌교수는 "아시아인 최초로 훈장을 받은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며 "우리나라 건축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8 이진환 생명자원산업학과 교수 환경부장관 표창장 수상

이진환 생명자원산업학과 교수가 환경보전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이 교수는 화학물질 사고 발생 뒤 잔류오염도 측정법과 원인·환경영향조사 규명을 위한 '화학사고 시 현장·정밀분석 오염도 측정 지침' 정책을 제안했다. 또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 연구과제 책임자로 다양한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는 정보집을 만든 공로도 인정받았다. 정보집은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대응·수습, 정보공유, 방재, 오염도 측정분석, 물질 특성과 물 반응성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과 대응자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오염도 측정가능 분석 장비를 목록화 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화학물질의 잔류오염도 측정법 개발과 각종 유해물질 정보를 알기 쉽게 요약한 정보집도 구축해 화학물질 사고대응과 수습 능력 향상 및 환경피해 확대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진환 교수
생명자원산업학과장, LINC+사업단
DANVI센터장

Hot News

9 세계 최초 5G 기반 '드론 글로벌 허브센터' 구축 협약

동아대는 지난해 9월 부산광역시-(재)부산테크노파크-사하구와 '부산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 드론산업 활성화 및 성장을 위한 '드론 글로벌 허브센터' 구축에 적극 나선다. 이번 협약으로 동아대와 부산시, 사하구, (재)부산테크노파크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과 드론 허브센터 구축을 위한 인프라 및 재정 협력,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 업무 협력 등을 도모한다. 특히 동아대는 부산 드론산업 육성정책 발굴·수립 지원, 부산 드론 허브센터 구축을 위한 부지 제공·건축 지원, 드론의 민간시장 보급 및 해외시장 수출을 위한 기업역량 강화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 승학캠퍼스에 들어설 '드론 글로벌 허브센터' 조감도

10 승학캠퍼스 뉴턴의 사과나무 공원 조형물 '드름' 조성

조형물 '드름' 조성 기념식이 지난해 10월 승학캠퍼스 뉴턴의 사과나무 공원(이하 뉴턴 공원)에서 개최됐다. 뉴턴 공원 내 분수대에 자리 잡은 '드름'은 BNK부산은행이 기부한 것으로 '넓적하게 생긴 뚝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옛날 궁궐과 같이 중요한 건물에 화재를 막기 위해 상징적으로 만들어졌던 방화수를 담은 그릇에서 착안한 '드름' 조형물엔 '화마(火魔)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 도망갔다'는 이야기처럼 항상 밝고 활기찬 일이 넘쳐나는 명문 캠퍼스로 거듭나길 바라는 뜻이 담겼다. '드름'은 단일형태·단일재질의 조형물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그릇을 상징하는 '드름'

11 학생회관 3층 진로카페 진담 개소

동아대 교육혁신원(원장 조규판)은 지난해 12월 재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해 승학캠퍼스 학생회관 3층에서 '진로개발센터 및 진로카페 개소식'을 가졌다. 진로개발센터는 개인상담실 2개와 집단상담실 1개 등으로 구성돼 예약 후 방문하면 개인, 집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진로카페 '라운지 진담(LOUNGE 進談)'은 언제든지 찾아가면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정보탐색, 진로활동상담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다. 한석정 총장은 "진로카페가 취업률 향상과 중도탈락 학생 예방, 지역사회연계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바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진로카페 '라운지 진담(LOUNGE 進談)' 내부



▲ '동아대학교의료원에서 만나는 명품 특별전'에서 석당박물관 소장품을 감상 중인 시민

12 석당박물관 지역민과 함께하는 특별전·나들이전 개최

동아대 석당박물관(관장 김기수)이 개관 60주년을 기념해 '민속, 일상으로의 초대' 특별전을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지난 2월 2일까지 개최했다. 2019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의 하나로 열린 이번 특별전은 우리의 옛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석당박물관 소장 민속유물 200여 점을 엄선해 공개했고 전통복식부터 문방구, 약장, 혼례도구, 농기구, 수영야류 탈 등 다양한 종류의 민속유물을 한데 모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밖에 보물로 지정된 지자총통(보물 제863호)과 쌍자총통(보물 제599호)은 물론 각종 화포, 조총, 도검, 활기구 등 무기로서의 가치가 뛰어난 군사유물도 함께 전시됐다. 김 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다양한 민속유물을 한 자리에 모아 시민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옛 일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많은 동아대 구성원과 지역민들이 방문해 전통의 지혜와 옛 세대의 숨결을 만끽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또 석당박물관은 소장품 나들이 전시회인 '동아대학교의료원에서 만나는 명품 특별전'을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한 달여간 동아대학교의료원 로비 아트리움에서 열었다. 동아대병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주고 박물관이 지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자는 뜻에서 마련된 석당박물관 소장품 나들이전은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13 지역사회 전문가 배출의 요람 경영대학원 50주년, 국제전문대학원 20주년 행사

동아대 경영대학원은 지난해 11월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재학생과 동문, 교직원 등 모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50주년 기념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열었다. 경영대학원은 1969년 개원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입지를 굳혀온 2,000여 명의 석사 동문과 3,000여 명의 최고경영자 동문을 배출했다. 국제전문대학원은 지난해 개원 2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0년 동북아국제대학원으로 개원, 2012년부터 명칭을 바꾼 국제전문대학원은 '국제통상', '다문화사회', '글로벌 한국학', '지방행정' 전문가 등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 경영대학원 개원 50주년 기념 세미나



▼ 국제전문대학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14 로스쿨 검사 2명 합격 전국 25개 로스쿨 중 8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19년 검사 임용시험에서 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재판연구원 합격자 명단에 1명의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0년 신규 검사 선발전형 최종 합격자 명단에 로스쿨 신수민(법전원 3) 학생과 이선균(석당인재학부·법전원 졸업생, 현 군법무관) 동문 등 2명이 포함됐다. 2명의 검사 임용시험 합격자 배출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서울대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8위권으로 동남권 로스쿨에선 부산대에 이은 2위의 기록이다. 최우용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과 격려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웅비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 나온 의미 있는 결과라 더욱 반가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고시 최종 합격자 3명 배출, 전국 2위

허영찬(법학부 96학번), 전문식(법학부 99학번), 김이정(법학부 08학번) 등 3명의 동문이 지난해 12월 2019년도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 합격자 12명 가운데 3명을 배출한 동아대는 전국 2위라는 호성적을 기록했다. 법원사무직의 경우 1,675명이 지원해 209.4대 1, 등기사무직은 254명이 지원 1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법원행정고시 최종합격자는 법원사무직 9명과 등기사무직 3명 등 모두 12명이다.

▼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15 학군단·취업지원사업 등 각종 평가에서 좋은 결과 얻어

제117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 ROTC)이 지난해 12월 육군 교육사령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2019년 최우수 학군단’에 선정됐다. 이로써 통산 10번째 최우수 학군단 수상의 영예를 안아 명실상부 명문 학군단 명성을 재확인했다. 전국 110개 학군단 가운데 △교내교육 △우수인력 획득 △전투준비태세 △부대관리 △근무기강 등 분야 실적평가 결과 학군단장을 중심으로 미래 정예장교 육성 등 전력 창출에 힘쓴 노력을 높이 사 육군교육사령부로부터 상을 받았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9년 부산권 대학별 특화사업 운영 워크숍’에서 취업지원실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기업 재직선배의 후배 교육 및 기금 참여 프로젝트인 ‘D-CAMF(Donga Corporate Alumni Mentoring & Funding)’와 실시간 온라인 멘토링 플랫폼인 ‘다잇다(DA-ITDA)’ 등 사례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학생상담센터는 지난 1월 전국대학 학생상담센터협의회로부터 활동부문 우수 상담기관상을 수상했으며 중소기업 계약학과인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일반대학원 석사과정)는 지난해 8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운영성과평가에서 설치 2년 만에 ‘S등급’(매우 우수)을 받는 쾌거를 일궜다.

▼ 남영신(지상작전사령관) 장군과 학군단 후보생



16 ‘젠더·어펙트연구소’와 ‘법학연구소’ 교육부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 선정

동아대 부설연구기관인 법학연구소와 젠더·어펙트연구소가 지난해 10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2019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법학연구소(소장 김용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연결사회에서 ‘인간-기술-제도’ 공진화에 따른 법제도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향’이란 연구과제로 ‘문제해결형’ 부문에 선정, 6년간 15억 6,000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김용의 교수는 “법조실무가이자 법학자로서 오랜 기간의 실무경험과 연구활동을 통해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앞으로 법학이 국제적으로 연결되거나 인접 학문과 연결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란 점”이라며 “전국의 많은 대학과 기관 법학연구소 중 동아대가 유일하게 이런 큰 지원 사업에 선정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젠더·어펙트연구소(소장 권명아 한국어문학과 교수)는 ‘연결신체 이론과 젠더 어펙트 연구’란 주제로 순수학문연구형에 선정, 6년 동안 12억 원을 지원 받는다. 권명아 교수가 지난 2011년부터 꾸려온 모임 ‘아프콤(affcom, affect+commune)’을 확대 재편해 지난해 설립된 신생 연구소인 젠더·어펙트연구소는 해마다 젠더·어펙트스쿨을 운영해 지역사회와 대학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권의 총서를 펴내며 한국 정동 연구(몸과 문화·윤리·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 개교기념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김용의(왼쪽) 법학연구소장과 권명아(오른쪽) 젠더·어펙트연구소장



17 학과·창업동아리 정부 지원사업 선정

동아대 에너지·자원공학과가 지난해 9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추진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국내 대학이 해외 우수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사업책임자인 권순일 교수는 “지구 공간정보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활용연구” 과제를 제출해 사업에 선정됐으며 18개월간 총 사업비 9억 원을 지원받는다. 창업지원단 소속 창업동아리 ‘큐패드’와 ‘DMT’가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7,000만 원과 4,500만 원을 각각 지원받게 됐다. 창업동아리 ‘큐패드’는 ‘다이얼 키패드’ 제품으로 사업에 선정됐으며 ‘DMT’는 ‘IoT 기술을 접목한 오토템핑 그래픽’ 아이템으로 사업에 선정됐다. 또 창업동아리 ‘명션(Thinction)’은 게임 큐레이팅 서비스인 ‘플레이 어워드(PLAY AWARD)’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명션’은 지난해 5월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부지원금 4,000만 원을 확보, 본격적인 사업화에 돌입했고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19’ 특별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 ‘다이얼 키패드’로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된 창업동아리 ‘큐패드’



교직원 수상 및 연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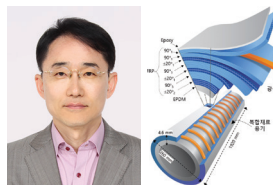
박은주 에코디자인사업단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

박은주 패션디자인학과 교수가 이끄는 에코디자인사업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에코디자인사업단은 산업통상자원부 'RIS(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를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폴뿌리기업육성사업'을 통해 에코디자인의 불모지였던 지역시장에 '에코디자인'이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사업단은 에코기술에 디자인을 융합한 '패션 및 생활소재산업' 중심으로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 기업 매출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지역산업과 지역혁신 성장에 기여기도 했다. 박 단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가능성을 지닌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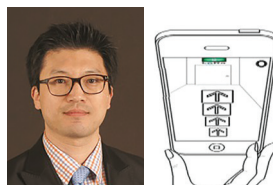
김승호 미술학과 교수팀, '3D프린팅·SW활용 아이디어톤대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수상

김승호 미술학과 교수 팀이 '4차 산업혁명시대 3D프린팅·SW활용 아이디어톤' 대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받았다. 김 교수와 5명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장연주·송지영·김학준·하현하·김현진), (주)네버시티 이찬민 대표 등으로 이뤄진 'Live Code'팀은 이번 대회에서 기존 시스템의 공정과정을 줄이고 새로운 벽화타일 시장 개척을 가능케 하는 '도자입체부조타일 전용 3D프린터' 개발을 제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도자입체부조타일 전용 3D프린터'는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주변환경(Total view), 재료, 전통, 사회적 요구 등의 균형을 중시하는 건축도자사업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보훈 신소재물리학과 교수, '광섬유를 이용한 손상 입체측정 시스템' 세계 최초 개발

신소재물리학과 최보훈 교수가 복합재료의 손상을 빠르고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소형 측정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 JCR 분야별 1위 논문집 'Composites Part B' 9월호에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 교수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권일범 박사가 협력한 것으로, 광섬유를 복합재료와 일체화한 뒤 특성 변화를 감지하는 측정방법을 사용했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에 앞서 원천연구를 수행, 역시 분야별 1위 논문집인 'Composites Science and Technology'에 지난 2년간 제1저자로 두 편의 논문을 연속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최 교수는 이번 논문을 포함 세 편의 논문이 연속해서 JCR(Journal citation reports) 1위 논문집에 채택됐다.



이동규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특허기술 이전

이동규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가 발명한 '증강현실 및 상황인지 알고리즘을 이용한 스마트 대피 유도 시스템 및 방법'을 (주)편에듀랩에 이전, 일선 학교 현장실습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교수가 개발해 이전한 기술은 증강현실 게임에서 착안해 실제 건물에서 게임하듯 재난대피를 학습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이다. 이 교수는 "스마트폰에서 재난 상황을 경고하고 현재 위치 정보에 기반한 최적의 대피경로를 안내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피를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강의나 동영상 시청 등 획일적인 대피교육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놀이하듯 즐겁게 체험하는 자기주도학습 방법을 연구했다"고 기술 개발 계기를 설명했다.

학생 대내외 수상



세계철강협회 'Steel Challenge(스틸 챌린지)' 대상·금상·은상·동상 휩쓸어

신소재공학과 이윤성(대상)·구태민(금상)·정영진(은상)·김동현·노현준(동상) 학생 등 5명은 지난 1월 'Steel Challenge(스틸 챌린지)-14' 대회에서 수상했다. '도전학기제'(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한 과제를 한 학기 동안 수행해 학점을 얻는 프로그램)를 통해 'Steel Challenger'팀(지도교수 한정섭)과 'Steel Avengers'팀(지도교수 강영조)으로 나눠 준비한 결과라서 더 뜻 깊었다.



'사회문제해결 대학수업지원프로젝트 공모전' 싹쓸이 수상

산업공학과·토목공학과 학생들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대학수업지원프로젝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휩쓸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최로 열린 공모전에서 산업디자인학과 3학년 박수현, 김은지 학생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토목공학과 '하수도공학' 수강 학생 6명으로 이뤄진 팀도 우수상을 받으며 선전했다.



섬유·의류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의상섬유학과(대학원)와 패션디자인학과(학부) 학생들은 지난해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의상섬유학과 대학원생인 샤호바지 카비르는 최근 열린 'PGKS 2019'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패션디자인학과 4학년 한유나·이선명·심효정·임효정 학생은 '2019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



창업 및 금융 경진대회서 잇따라 수상

경영정보학과 4학년 안혜진 학생은 지난해 9월 '제5회 부산 국제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BUFF FSC 경진대회'에서 수상했다. 안 학생이 속한 'SLUSH' 팀은 초음파와 물의 파장을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창업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대학생 역량강화 네트워크(BUFF) 4기 금융전문역량(FSC)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는 장려상을 받았다.



2019 클라우드 플랫폼 비즈니스 공모전 '대상' 수상

LINC+사업단 지원을 받은 '부산아라' 팀은 '2019 클라우드 플랫폼 비즈니스 공모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팀장을 맡은 경영학과 4학년 임예림 학생은 "부산아라"는 부산 로컬 가이드 및 국내외 여행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ICT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라며 "부산지역 관광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는 제작의도를 인정받아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2019 부산권역 링크플러스 대학 연합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최우수상·우수상 수상

기계공학과·전자공학과 학생들이 '2019 부산권 LINC+ 15개 대학 연합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전기공학과 3학년 반소영 학생은 현장실습수기공모전 부문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 한석정 총장과 신정택 총동문회장, 강의구 주부산영사단장(후원회장), 하형주 스포츠단장(후원회 부회장, 산악인 엄홍길 대장(후원회 홍보대사) 등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모인 동아대 스포츠단 후원회 창립식



▲ 양정모, 체육학과 71학번
(1976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



▲ 하형주, 체육학과 80학번
(1984 LA 올림픽 유도 금메달)



▲ 문대성, 체육학과 95학번
(2004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

동아대의 저력을보다 표범의 기세로 이끈 74년 체육사

체육 분야에서 단연 독보적인 강호로 불려온 동아대학교가 '스포츠탄 후원회' 창립으로 대학 스포츠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동문 스포츠인의 활약상과 그들이 만든 감동적인 역사의 순간을 집대성해 지난 2017년 4월 마련된 '스포츠탄 명예의 전당'에 이어 동아 체육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든든한 토양이 될 '스포츠탄 후원회'는 그간 동아대 스포츠단의 눈부신 활약상 덕분에 얻은 귀한 결실들이다. 패기와 의지를 발판 삼아 도약해온 동아대 74년 체육사의 일관된 키워드는 바로 '저력'이었다

'스포츠탄 후원회' 창립, 대학 스포츠 새역사 쓰다

날렵하고 강인하다. 냉철하고 치밀하다. 패기와 용기가 넘친다. 상징 동물인 표범을 그대로 닮았다. 74년 동아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아대 스포츠인 이야기다. 이처럼 동아대는 우리나라 대학 스포츠를 선도하며 걸출한 동문 스포츠인을 배출,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최근 동아대는 '스포츠탄 후원회'를 창립, 우수 선수 양성을 위해 더 체계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 2월 4일 리인홀에서 열린 '스포츠탄 후원회' 창립식엔 한석정 총장 등 대학본부 보직자, 후원회장을 맡은 강의구 주부산영사단장, 부회장을 맡은 하형주 동아대 스포츠단장, 양재생 은산해운항공(주) 회장, 신정택 총동문회장, 스포츠탄 후원회 홍보대사로 나선 산악인 엄홍길 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스포츠탄 후원회는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와 선수들의 정신적 지주 등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 '동아 체육'의 전통을 이어나갈 새로운 스타 탄생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동아대 체육 역사에서 빛나는 섬광은 과연 누굴까. 단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레슬링 양정모 선수다. 온 국민이 그토록 열망한 광복 이후에 열린 올림픽, 첫 금메달이라 그 의미는 더욱 남달랐다. 메달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떡방앗간을 하던 양 선수 집으로 축하객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한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유도 95kg급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하형주 선수 역시 모교를 빛낸 스포츠 스타다. 브라질의 비에이라를 번쩍 들어 안 다리후리기로 매트에 꽃았던 그는 현재 모교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는 중이다.

동아대 세 번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대회(3연패), 히로시마아시안게임과 방콕아시안게임(2연패) 등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금메달을 휩쓴 태권도의 전설이라 불리는 김제경 선수. 은퇴 후 2000년부터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도장을 운영한 그는 1994년에 체육훈장 거상장

과 1998년 백상체육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8년에 모교 태권도학과 석좌교수에 임용된 이후 2019년 태권도학과 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을 쾌척해 모교 발전에 힘을 보탤다. 이 밖에 2004년 아테네올림픽 결승전에서 뒤후려차기로 KO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손에 쥔 태권도 문대성 선수,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 유도 무제한급에서 동메달을 딴 조재기 선수, 2016년 리우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김태훈 선수 등 승학캠퍼스 예술체육대학 7층에 자리한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가면 동아대를 빛낸 영웅들과 그때의 추억을 만날 수 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7명의 핸드프린팅과 명판,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6명,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15명, 그 밖에 축구·육상·복싱 등 세계무대에서 업적을 남긴 선수들의 명판뿐 아니라 74년 모교 체육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기별 연표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꺾이지 않는 '동아 표범' 기세

최근까지 스포츠단이 일군 성과는 그야말로 대단했다. 1948년 창단 이래 수많은 대회를 석권한 전통의 강호 야구부는 유독 전국체육대회와는 쉽사리 연이 닿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을 맛본다. 1983년 제64회 전국체육대회 우승 이후 35년 만의 일이었다. 씨름부도 좋은 성적을 냈다. 제49회 회장기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이다성(체육학과 4), 김민재(체육학과 1) 선수가 청장급(-85kg) 결승전에서 나란히 1, 2

위를 차지한 것. 이에 질세라 레슬링부도 제37회 회장기전국레슬링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종합 2위라는 걸출한 성적을 거둔다. 희소식은 계속 이어졌다. 레슬링부 김기범, 황인중 선수가 2019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이다. 이들은 2019년 세계시니어선수권대회파견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및 세계주니어선수권 대회파견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월등한 기량을 선보였다. 이후 레슬링부는 제45회 대통령기 전국시·도 대항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금 1, 은 3, 동 7개 등 모두 11개의 메달을, 제43회 전국대학레슬링선수권에서 금 2, 은 4, 동 5개를 획득하면서 자유형 종합 1위를 차지한다. 이 대회에서 윤석기 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김기중 감독은 지도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는다.

세계대회·전국대회에서 눈부신 성과 이어가다

태권도부 역시 2019년 승전보를 올렸다. 제46회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단체전 1위를 차지한 것이 시작이었다. 강민우 선수는 제30회 나폴리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8년 만에 대한민국 남자 태권도 금메달을 따내 기쁨을 안겨줬다. 2019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에서 금 2, 은 2, 동 1개를 차지, 이동주 감독과 황인하 코치는 뛰어난 지도력을 인정받으며 베스트코치상을 수상한다. 또 제28회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대회에서도 금 1, 동 1개를 얻었다.

육상부가 이룬 성과도 뜨거웠다. 제48회 전국종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 금 1, 은 3, 동 1개를 땀는데 특히 해머던지기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김민중(체육학과 3) 선수는 개인 최고기록을 세운다. 수영부가 보여준 활약상도 흥미로웠다. 제68회 회장배 전국수영대회에서 금 3, 은 6, 동 4개를 제38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서는 금 1, 은 8, 동 3개를 획득했다. 이승열 선수가 평영 50m에서 대회신기록(28초 56)을 세우며 금메달을 접수하는 동시에 접영 50m에서 동메달을 추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2019 MBC배 전국수영대회에서는 금 7, 은 5, 동 5개를 얻으며 남자대학부 종합 우승을 차지한다. 승리의 여세를 몰아 동아대 스포츠단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육상·레슬링·태권도·씨름·수영 5개 종목 46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금 3, 은 2, 동 2개로 선전했다.

교수·학생 한마음으로 이뤄낸 '막강 동아'

동아대는 스포츠단뿐만 아니라 체육 분야 동아리에서도 역시 강한 면모를 드러냈다. 예술체육대학 소속 동아리 '드래곤보트'는 제13회 전국 카누·드래곤보트대회에서 금 3, 은 1, 동 2개를 차지하면서 최강팀으로 자리를 굳혔고 2019 거제시장배 전국 드래곤보트대회에서는 1위에 오르며 원톱의 면모를 다시금 과시한다. 이에 그치지 않았다. 제12회 부산시장배 전국 드래곤보트대회까지 1, 2위를 석권하며 끝까지 모교의 자존심을 지킨 것이다. 2002년 창단해 42명이

활동중인 동아대 교수축구회도 남다르긴 마찬가지였다. 제16회 전국 교수 축구대회에서 클래식 1부 리그 첫 전체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교수축구회장 홍영섭 교수는 “2002년 1회 대회부터 해마다 빠짐없이 참가했는데, 16번째 도전 끝에 우승이라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라며 감격적인 소회를 밝혔다. 한석정 총장이 2017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이사로 선임된 데 이어 2019년에는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성인대표팀 코치로 야구부 이재현 감독이 선임된다.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5년 만에 야구부를 정상에 올려놓은 주역, 능력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은 이재현 감독은 “코칭 스태프나 국가대표 선수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워 동아대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에게도 전해주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외부에서도 동아인들의 남다른 역량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동아대는 2019년 10월, 미국 전미태권도교육재단과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한미 양국의 태권도 산업 발전과 전문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기로 한다. 한 총장은 2017년 4월 스포츠 명예의 전당 개관식 현장에서 “나라와 학교를 빛낸 모교 스포츠인을 다시금 떠올리며 동아대 특유의 스포츠 정신을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동아대는 스포츠 스타들이 선도하는ダイ내믹한 한국 스포츠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 1948년 야구부·축구부·육상부, 1963년 레슬링부, 1975년 태권도부, 1962년 씨름부, 1994년 수영부 창설 후 우리나라 대학 스포츠를 선도해온 동아대. 올해는 5년 만에 유도부를 재창단한다





▲ 코칭 수업 '코딩으로 배우는 패션'



▲ 지덕체를 갖춘 동아인 양성을 위한 '무도와 인성'



▲ 코칭 수업 '책으로 듣는 음악, 음악으로 읽는 책'



▲ AI 전문가 성림 홍콩과기대 교수 초청 강연

교육 혁신으로 꽃피다 진화하는 융합·통섭형 인재

서로 다른 기술과 전문성, 강점이 만나 새로운 결과물이 탄생한다. 공대생이 경영과 인문학에 몰두하고 인문학도가 공학과 경영학에 빠져든다. 다양한 학문을 창의적으로 융합·통섭하는 인재,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부분이 아닌 전체를 꿰뚫는 인재가 주목받는 시대를 맞았다. 학문 간의 자유로운 넘나듦을 지향해온 동아대학교, 경계와 한계를 깨고 규제와 타율을 넘는 교육 혁신을 실현해왔다. 초치일관(初志一貫) 동아대의 화두는 '교육중심, 교육혁신 대학'이었다. 올해 개교 74주년을 맞아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놀랍고도 빛나는 성과를 거두며 순항 중이다. 심 없이 묻고 성실히 답하며 끊임없이 시도하고 거침없이 도전한 결과다. 21세기 융복합 시대, 변화의 중심에는 한석정 총장이 있다. 최대 수혜자는 단연 차세대 주역 동아인들이다.

시대 흐름 꿰뚫고 교육 혁신 선두에 서다

학생 수 2만여 명 규모의 동남권 최고 사학 동아대는 정·재계뿐 아니라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의 인재를 양성해온 배움터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감한 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한 한석정 총장은 2016년 8월 취임 직후부터 '교육중심 대학', '전인교육'을 전면에 내세웠다. 학생 중심 교육, 학교 역사 찾기 등 대학의 기본을 점검하고 '동아 젠틀맨' 육성에 집중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총장은 학업 외에 인성과 체력을 중시하는 커리큘럼을 갖춘 선진국 명문 대학의 사례를 들며 지덕체(智德體)를 고루 갖춘 동아인을 '동아 젠틀맨'이라고 명명(命名)한다. 1994년 시작한 권투, 1996년 부산아마복싱선수권대회(웰터급)에서 준우승을 한 후 출몰 권투로 체력을 단련해온 한 총장, 2017년부터 태권도와 유도를 교양필수 과목으로 개설한 데는 그의 의지가 컸다.

2017년 말, 동아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바라는 인재 핵심역량 재정립에 나선다. 전문성과 인성, 창의와 도전, 소통과 글로벌 능력 6가지 키워드가 그것이었다. 교육 혁신 의지와 핵심 개념을 담아 '비욘드(beyond) 동아'라는 새 슬로건도 선포했다. 학과·대학을 넘어(Boundaryless) 대학시절을 넘어(Entire life), 한계를 넘어(Y-Why not), 강의실을 넘어(On&Off), 규제를 넘어(New Ground), 타율을 넘어(Design By Self)란 의미를 담은 '비욘드 동아', 지역과 세계와의 울타리 없는 동아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품고 있다.



▲ 교양교과목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 해마다 열고 있는 '교양교육 고도화 워크숍'

▲ 교수 4명이 함께 강의하는 동아대 최초의 '코티칭(co-teaching)' 과목으로 화제를 모은 '거대한 전환'

교양교육 강화, 획기적 교육과정 체계 변화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 동아대는 교양교육과정 개편을 시행한다. 2017년 '무도와 인성(태권도·유도)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개설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창의적 대학설계', '봉사와 헌신', '계열별 명저읽기와 세미나', '컴퓨터적 사고(코딩)' 등을 토대교양 과목으로 도입하고 2019년에는 '인간과 환경의 이해'를 교양필수로 개설한다. 교육과정 체계에도 큰 변화를 줬다. 우선 교양과목은 교양필수, 토대교양, 중점교양의 체계로 바꿔 소통 능력을 강화했다. 또 융복합 과정을 보장하면서 다전공 제도를 도입했고 융합전공과 자기설계 연계전공을 강화했다. 현장 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늘리는가 하면 '비교과관리 통합체계'와 '학생역량 연계시스템'을 도입해 여기저기 흩어진 비교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도전학기제, 연구학점제, 특별학점 인정, 군복무 기간 취득 학점 인정, K-MOOC학점 인정, 협정 체결 대학교 간 학점 교류 등 학생들에게 학점 이수가 가능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그간 '학생 중심 교육'을 표방해온 동아대다운 면모였다.

융복합 능력 UP, '코티칭(co-teaching)·팀티칭' 과목 개설

21세기는 인문과 사회, 자연과학 지식을 통섭하는 능력을 지닌 인재를 원한다.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융복합 능력'을 키우겠다는 동아대 의지는 확고했다. 2018년 2학기, 동남권 최초로 4명의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코티칭(co-teaching) 과목 개설이 그 일환이었다. 분자유전공학과 정호원 교수, 화학공학과 김점수 교수, 국제무역학과 오지영 교수, 기초교양대학 글쓰기과정 박은희 교수가 1년 넘게 공들여 '거대한 전환' 중점교양 과목을 선보였다. 흥미로운 주제와 이색적인 수업 방식에 관심이 쏠리면서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해답과 틀의 강요가 아닌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답을 찾는 색다른 접근법이 성공을 거둔 셈이다. 이후 2019년 1학기 패션디자인학과 이선희 교수와 전자공학과 김종욱 교수가 함께한 '코딩으로 배우는 패션', 2019년 2학기에는 독서교육전공 이재형 교수와 음악교육전공 배수영 교수가 만나 '책으로 듣는 음악, 음악으로 읽는 책'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동아대는 2018년 11월,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을 발족한다. 한 총장은 "‘교양’이라는 말은 진부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무척

절실하다. 동아대 학생들은 찬란한 학교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며 지덕체(智德體)를 갖춘 융복합 인재로 성장해 사회로 나갈 것"이라며 '교육 철학의 동반자' 역할을 해 줄 것을 학생평가단에 당부했다. 학생평가단이 제안하고 교수 공모를 거쳐 2019년 2학기부터 신설된 과목이 '중독의 이해'와 '범죄의 심리'다.

창의적 자기주도 학습 '협력형 강의실' 구축

데스크톱과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 화면에 띄운다. 이동형 모니터와 브레인스토밍용 화이트보드, 수업화면 스냅샷, 판서 앱 등 수업에 활용할 첨단 도구가 가득하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생들은 여러 형태로 모둠을 바꿔가며 토론을 이어간다. 교수와 학생이 활발히 소통하는 공간, 창의적 자기주도 학습이 최적화된 공간 마련에 힘쓴 동아대는 2019년 3월, 지역 대학 중 처음으로 협력형 강의실을 구축했다. 첨단 통합 미러링(mirroring) 시스템을 갖춘 공간이다. 각 단과대학 건물에 마련된 협력형 강의실에서 '코딩으로 배우는 패션', '거대한 전환', '학교 및 학급경영', '창의적 자기설계',

○ 주요 비교과 프로그램(2019-2학기 총 380여 개 개설)

주관부서	프로그램명
교수학습개발센터	Jump-up 기초학력강화 프로그램
진로개발센터	재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설계 특강
학생상담센터	진로-또래상담 프로그램
도서관	독(讀)한 책임기, 북모닝
국제교류과	Global Win-Win(학습튜터링)
학생복지과	해외봉사활동,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취업지원실	빅데이터실무자 양성과정
다우미디어센터	교내언론 학생기자·방송국원
공자아카데미	재학생 중국요리 특강
국어문화원	아름다운 우리말 되살리기 UCC공모전
언어교육원	영어 에세이 대회
LINC+사업단	스케치업 활용 3D 모델링 및 프린팅
현장실습지원센터	DA-LINC+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창업지원단	릴레이 CEO 특강

Issue Focus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스킬’, ‘무역세미나’ 등 강좌가 진행됐다. 교수 여러 명이 함께 수업하는 코티칭(co-teaching) 수업뿐 아니라 온라인 선행학습 뒤 토론식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작품을 설계·제작하는 교육프로그램인 캡스톤디자인과 문제중심 학습인 PLB, AL(Action Learning) 등의 융복합 수업이 날개를 단 것이다. 조규관 교육혁신원 원장은 “협력형 강의실은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 협력 교육의 실현이 가능한 공간”이라며 “혁신적인 교육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강의실 설계를 끊임 없이 고민하고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혁신원은 이 시스템을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가상대학)와도 연계해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교수의 수업 질 관리를 효과적, 체계적으로 가져가도록 이러닝(E-Learning)을 고도화하고 있다.

안전, 쾌적, 편리한 시설 개선과 확충에 힘써

동아대는 캠퍼스 시설 개선에도 공을 들였다. 2018년 8월 ‘뉴턴의 사과나무 공원(약칭 뉴턴공원)’이 승학캠퍼스의 ‘시

그니처 공원’으로 재탄생했다. 공원 벤치와 잔디에 모인 학생들은 공원 옆 즐비한 벚꽃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으며 캠퍼스 낭만을 만끽했다. 2018년 3월 리모델링을 마친 인문과학대학 지하 1층 ‘비욘드 라운지(BEYOND LOUNGE)’는 형형색색의 아트월과 아기자기한 테이블이 인상적인 공간이다. 한림도서관 건물에 자리 잡은 ‘DAU DREAM 교육실’은 창업자 간 자유로운 교류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로 활용 중이다. 또 ‘LINC+ 플랫폼 LAB’에는 3D프린터 10여 대와 VR기기, 드론, 플로터(도면·현수막 등 다양한 규격을 인쇄할 수 있는 특수 인쇄기), 소형레이저커팅기, 설계용 워크스테이션 등을 구축, 3D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개발 교육,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 교육, 디자인 성과물 출력 등이 가능하다.

‘교육과정’ 부문 전국 유일 우수사례 선정 쾌거

시대 흐름을 앞서는 양질의 교육뿐 아니라 첨단화된 시설 구축에도 열과 성을 다한 동아대, 2018년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우수 개선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양교육 개선 의지가

확고하고 컨설팅 이후 개선 성과가 두드러진 점, 우수 개선 사례의 효과성과 지속성, 타 대학 활용 가능성 등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2019년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5개 영역 30개 준거를 모두 충족, 인증을 획득하며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교육과정’ 부문 우수사례 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특히 인증 판정을 받은 54개 대학 중 ‘우수사례’는 3개 대학만 선정, 동아대는 동남권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우수사례 선정은 해당 부문에서 미흡 판정이 없는 것은 물론 판정기준 이상의 우수한 실적과 타 대학의 모범사례가 되어야만 선정될 수 있다는 점, 대학의 경쟁력이나 특성화 분야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융합과 협력, 소통과 연결, ‘교육 혁신’ 한 길에서

2019년 12월 5일, 동아대 승학캠퍼스 경동홀에 300여 명의 학생이 운집한다. 2017년 ‘실패의 미학’, 2018년 ‘나눔의 미학’에 이은 세 번째 토크콘서트, 주제는 ‘융합의 힘’이다. 2017년부터 학생들과 적극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온 한 총장,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마음을 열어 화답했다. 이날 한 총장은

“인생이라는 장기 레이스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키워 가야 한다”면서 “소통, 융합, 협력, 연결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통의 힘, 융복합 시대, 협력과 상상, 초연결사회는 모두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키워드다. 동아대는 ‘인문교육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동아대의 교육 혁신은 ‘변화의 시대, 과연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은?’, ‘어떻게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킬까?’ 본질을 꿰뚫는 질문에서부터 비롯했다. 고민은 깊었고 실천의 고삐는 늦추지 않았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교육 혁신의 바다에서 거침없이 수영(游泳)중인 동아대, 공감의 영역을 넓히며 새로운 가치를 공유했고,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학 공동체의 힘을 보여줬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에 선정된 동아대는 ‘스마트헬스케어 융합전공’을 신설, 2020학년도부터 운영한다. 동아대의 ‘교육 혁신’은 현재진행형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어떤 변화에도 대응 가능한 유연하고 역동적인 인재들의 요람이 될 때까지, 2020년에도 동아대는 뚝심 있게 ‘교육 혁신’ 한길에서 있다. 다시 시작이다.

▼ 캠퍼스 곳곳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새 단장한 모습



▼ 각 부서와 단과대학, 학과에서 개설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한눈에 보고 참가신청, 관리할 수 있는 ‘DECO’ 시스템



“우리에게 모교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양연화(花樣年華)”

우성종합건설 정한식 대표, 이영미 이사 동문 부부



부산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 1위로 인정받은 중견회사 우성종합건설의 정한식 대표와 이영미 이사는 동아대 생명자원과학대학과 법과대학을 각각 졸업한 동문 부부다.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살뜰히 챙기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열성을 다한 정 대표와 이 이사에 게 모교는 아련한 추억의 고리, 특별한 인연의 시작, 개인 정체성의 뿌리다.

암흑의 시대, 캠퍼스 커플의 청춘 전성시대

1959년 경남 김해 출생인 우성종합건설 정한식 대표가 동아대 농과대(현 생명자원과학대)에 입학한 건 1978년, 곧 부마민주항쟁을 맞는다. 최루탄 연기로 자욱한 대학, 하루도 시위가 끊이지 않던 하수상한 시절이었다. 대학 졸업 후 정 대표가 차린 광고 출판사는 생계를 꾸려갈 삶터이자, 운동권 동료들의 아지트가 된다. 관련 인쇄물을 만드느라 밤을 새며 후배들과 소주 한 잔을 기울이던 그날의 일상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걸까. 가난했지만 함께여서 든든했고 마음만은 풍요로웠던, 눈부시게 따듯했던 그날을 회상하는 정한식 대표, 그의 곁에는 항상 동문 후배이자 사업 조력자이며 인생의 반역자인 이영미 이사가 있었다. “지금은 웃으며 얘기하지만 대학시절을 떠올리면 ‘가난’이란 두 글자가 떠나질 않아요. 누구나 가난했고 기다림에 익숙했죠. 돌이켜 보면 낭만적이고 추억할 게 많은 아날로그 시대였어요. 1980년대는 암흑의 시기였고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제 땀을 보냈다는 자부심이랄까, 정말 치열하게 청춘을 보냈죠. 부마민주항쟁 당시 최선봉에 동아대가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동문 후배인 아내를 만나 연애도 열심이었구요. 풋풋하고 순수했던 20대, 그때 참 좋았어요.” 동아대 장학생이었던 정 대표, 이 이사 역시 법대 근교장 학생이었다. 이들의 만남은 정 대표의 광고 출판사에 이 이사가 타이피리스트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비롯됐다.

모교가 주는 힘의 원천, 삶의 버팀목 같은

8년간 운영해온 광고출판사를 접고 분양대행사를 차린 후 우여곡절 끝에 2011년 우성종합건설을 설립, 어느덧 2020년을 맞았다. 아파트 완공 후 분양하는 이른바 ‘후분양제’를 전격 도입할 만큼 회사는 충분한 자금력뿐 아니라 품질 자신감마저 갖추고 고공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제겐 100여 명가량 식솔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열 명 안팎은 26세에 입사해 50세가 넘었으니 저와 회사를 키우느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고 젊음을 바친 이들이죠. 직원을 뽑을 때 저희 부부가 제일 중시하는 건 선한 인성이예요. 면접만 보고 인성을 판단하는 게 무리일 수 있지만 대학 성적이나 보유한 기술보다는 세상과 동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얼마나 잘 협력하고 융화하는지 융통성과 합리성을 살피는 편이죠. 능력만 뛰어난 1인이 이끌어가는 시대는 지났어요. 겸손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소통에 적극적인 성품이 선한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이예요. 우성종합건설은 선한 품성을 최대 강점, 경쟁력이라 봅니다.” 대표와 이사 모두 동아대 출신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력서를 볼 때면 동문 지원자의 서류를 좀 더 유심히 살피는 건 인지상정(人之常情)일 터. 모교 출신들이 입사해 눈에 띄는 만큼 일을 잘해내는 걸 볼 때 정 대표와 이 이사의 뿌듯함은 배가 된다. 보이진 않지만 동문들 저마다 마음 깊숙이 긴밀하고도 끈끈하게 연결된 단단한 동아줄이 서로가 서로를 이은 채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느 정도 사업은 궤도에 오른 시점, 정 대표 부부는 모교로 시선을 돌렸다. 지금까지 모교 발전기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약정했다. 정 대표와 이 이사에게 동아대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뜻하는 ‘화양연화(花樣年華)’였다. 그 시절을 추억하는 힘으로 오늘을 살았고 내일을 그려갔다. 후배들 역시 저마다의 대학시절이 인생의 정점을 찍는 ‘화양연화’가 되길 그는 바란다. 추억은 그대들에게 방전된 어느 순간 에너지를 불어넣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무한 동력이 될 테니.

사람을 위하는 과학으로 4차 산업의 꽃을 피워내다

전미라 건강과학대 학장(식품영양학과 교수)



근원적 과학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로 풀어내다

'2016년 부산 여성과학자상'을 수상하고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에도 5년 연속(2015-2019) 등재된 전미라 교수는 지역사회는 물론 국내 식품영양학계를 선도하는 인물로 유명하다.

2007년 동아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브레인 부산21'사업 단장과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부단장 등 굵직한 보직을 맡기도 했던 그는 최근 식품영양학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접목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중 먼저, 7개 광역시 중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산에 포커스를 맞춰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천연물로부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억제할 수 있는 소재와 활성물질을 발견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 2018년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의 일환으로 실버바이오·헬스 분야에 집중해 고령자들을 위한 디저트를 지역기업체와 협업 개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부산의 로컬푸드인 미역과 다시마 등 다양한 해조류를 첨가한 '기능성 해조류 아이스크림'과 유당이 분해된 치즈를 주재료로 한 '시니어 치즈볼' 등 이른바 '기능성 실버디저트'를 개발한 것이다. 이는 고령자에게 부족하기 쉬운 다양한 영양소를 특화시킨 한편 섭취문제를 개선해 호평을 받았으며, 실제 제품화를 앞두고 있다.

지역과 상생 그리고 '사람을 위하는' 과학

전 교수가 학장을 맡고 있는 건강과학대학은 지난해 12월, '동아대 총동문회 창립 70주년 정기총회'에서 발전계획 우수단과대학으로 선정돼 후원금 5천만 원을 받기도 했다. 대내외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 교수는 "사회적으로도 의약, 건강, 영양과 식품이 일궈나갈 시너지가 엄청나다"며 "향후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마련 등 융복합 연구를 진행해 건강과학대학을 보다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단과대학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는 말로 청사진을 제시했다.

평소 '지역대학은 지역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전 교수는 단과대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 '지역 상생'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2016년도부터 식품영양학과 교수들과 함께 고혈압, 당뇨, 근저하증 등 질환이 있는 고령자와 지역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식단 및 영양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전 교수의 이러한 상생 마인드는 졸업과 동시에 많은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부터 시작됐다. "지역의 이공계 학생들이 지속적인 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가 뒷받침 돼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실용 가능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이라는 핸디캡을 반전시켜 현안을 극복해가는 건강과학대학의 행보는 마치 정곡법처럼, 아프지만 명쾌한 답을 주는 듯하다.

지난해 동아대는 교육부로부터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그 과정에서 학문 간 경계를 넘는 '스마트헬스케어 융합전공' 신설이 큰 이슈가 됐다. 사람을 위하는 과학에서 최근에는 융·복합이라는 트렌디한 교육으로, 또 그 성과를 지역과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곳. 전미라 교수가 이끄는 건강과학대학은 이러한 교육 혁신의 큰 축이기도 하다.



DECO, 동아의 열정을 모으다

임성준 학생(경영학과 4), 김민성 학생(건축공학과 4)



체험 후기를 꾸준히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주변 친구들이 후기를 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고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는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에게 간접적으로 전달이 잘 되기를 고려하며 작성했다. 참여개요, 참여 동기 및 목표, 활동내용, 경험과 활동으로 얻은 역량 등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렇게 5개월간의 콘텐츠가 담긴 블로그 포스팅은 그에게 수기 공모전 수상을 안겨다 줬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홍보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그러다보니 어느덧 ‘DECO 프로그램 최다 참가자, DECO 수기 공모 최우수상’까지 연결됐다.

또 그렇게 이어진 진로개발센터의 ‘Career Design’과 학생상담센터의 ‘꿈멘토’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기까지 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선배들의 기사를 볼 때면 가슴이 떨린다는 임성준 학생. 그도 언젠가 동아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자기 개발의 첫 단추가 된 DECO DECO 수기 공모 최우수상 | 김민성 학생(건축공학과 4)

“찾아보면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무척 다양한데 이를 활용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동력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생활 변화의 첫 단추는 DECO로부터 시작됐죠.” DECO는 ‘도전하고 소통하는 창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동아대에서 시행하는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가 가능하고 경력 및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다.

김민성 학생은 우연히 DECO의 ‘Jump-up 프로그램’에서 멘토 활동을 하는 친구를 보고 처음 비교과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한다. 모두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는 이러한 그룹 스터디는 혼자서 아닌 팀으로 하는 것이기에 더 끌렸던 것. 이후 그는 성적향상을 원하는 지인들과 함께 ‘동아스터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그룹 스터디는 각 구성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며 더 나은 목표를 바라보게 했다. 그 결과 김민성 학생은 처음에 계획했던 목표보다 더 높은 성적이 적힌 성적표를 바라보게 됐다.

‘Jump-up 프로그램’은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비교과 활동이었지만 멘토의 기준이 되는 성적을 맞추지 못해 지원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동아스터디 프로그램’으로 성적이 향상돼 지원 자격까지 갖추게 됐고 DECO 수기 공모 최우수상까지 수상하게 된 것이다.

“학업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서로에게 지식과 정보를 공유했고, 목표를 바라보며 함께 공부했기에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김민성 학생은 과 내에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공부를 시작했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는 “지금의 멘토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로 앞으로의 꿈을 밝혔다.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DECO DECO 프로그램 최다 참가자 | 임성준 학생(경영학과 4)

“비교과 프로그램을 하며 만났던 많은 학생과 졸업한 선배님들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 역시 사회에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DECO 서포터즈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임성준 학생은 서포터즈가 되기 전부터 이

미 주변 지인들에게 DECO를 알려온 열혈 홍보인이다. “비교과 활동에 원래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동아대 알리미 앱을 통해 프로그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DECO를 알게 됐고 서포터즈까지 지원하게 됐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생겼지만 그런데도 꼭 해보고 싶었죠.” 현재 동아대 비교과 프로그램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카카오페이지까지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해 학생들을 찾아가고 있다. 이러한 SNS 관리가 바로 DECO 서포터즈의 주된 역할이다. 임성준 학생을 포함한 다섯 명의 서포터즈 팀원은 소통과 협업을 통해 DECO 홍보에 힘을 실었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블로그에 비교과 프로그램





소중한 손길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마음,
동아의 기쁨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과 정성어린 손길이 동아를 크게 키웠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되어 곳곳에 스며든 당신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간호학부
'제1회 혜원장학금 수여식' 개최

지난해 10월 열린 '제1회 혜원장학금 수여식'엔 이 학부장과故박혜원 학생의 부친 박민철 씨, 간호학부 교수, 재학생 등이 참석, 강현석·김민하 학생에게 각각 100만 원씩 모두 2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혜원장학금은 동아대 간호학과 3학년 재학 중 세상을 떠난故박혜원 학생 부모와 간호학부 교수들의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간호학과 3학년생 2명을 선정해 해마다 지급된다.

동아대 간호학부는 지난해 5월故박혜원 학생의 부모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대학에 기부한 1,000만 원과 고인의 지도교수였던 주현옥 교수 기부금 1,000만 원 등 교수들의 뜻을 모은 2,000만 원을 더 마련, 모두 3,000만 원으로 '혜원장학금'을 만들어 훈훈한 감동을 줬다.



산업디자인학과
네 번째 디자인 재능기부 프로젝트 진행

산업디자인학과 김재홍 교수와 학생들이 네 번째 '디자인 재능기부' 프로젝트인 승학캠퍼스 근처 '소나무길 맛집 스탬프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대학특성화사업 '동아대학교 도시생활환경 서비스디자인 교육사업단'의 지원으로 이뤄진 이 프로젝트엔 김 교수와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미디어전공 2학년 1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 승학캠퍼스 진입로에 있는 음식점과 카페 등 13개 상점과 협력, 지난해 12월 한 달간 학생들이 상점을 방문해 스탬프를 찍는 개수에 따라 '소나무길 캐릭터'가 담긴 문구와 식당 할인쿠폰, 양모담요 등 선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캠퍼스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왔다.



동아 재능기부봉사단
활발한 기부활동 펼쳐

동아 재능기부봉사단 소속 '마음을 밝히는 사람들'이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부산 서구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실시했다. 동아대 전기공학과 공식 봉사 동아리인 '마음을 밝히는 사람들'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와 부산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을 받아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봉사단체다. 대학 전공을 살려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2018년 부산 서구와 MOU도 체결하는 등 해마다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서구 외에도 부산 사하구와 북구 등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방문해 노후화된 전구를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 전기안전교육 진행 등 다양한 재능기부를 펼친 바 있다.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건설 회장
3억 원 기부**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건설 회장이 개교 100주년 대비 학교 사랑 캠페인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으로 3억 원을 쾌척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동아대 승학캠퍼스 총장실을 찾아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1964년생으로 경북 봉화 출신인 최 회장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등을 이수했다. 그는 주택건설뿐 아니라 관광·테마파크 등 다방면에서 경영능력을 발휘, 국가와 지역 경제 및 주거 문화의 혁신적 성장에 헌신하고 우리나라 경제·문화·교육·예술·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지난해 10월 동아대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최 회장은 80층 규모의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를 비롯한 다수의 고품격 주택단지 건설, '충도 해상케이블카' 조성으로 도심재생은 물론 부산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킨 대표 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스포츠와 문화, 예술, 교육 분야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한식 (주)우성종합건설 대표·이영미 이사
1억 원 기부**

동문 부부인 정한식 (주)우성종합건설 대표이사와 이영미 이사가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 생명자원과학대학과 법과대학을 각각 졸업한 정 대표와 이 이사는 장학금 기부는 물론 '동아비즈니스포럼' 활동 등 모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꾸준히 나타내고 있다. 부울경 지역 중심으로 '우성스마트시티·뷰' 등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우성종합건설의 이들 부부는 '우성종합건설의 기업가치는 나눔을 통해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 사회공헌 활동에도 누구보다 앞장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스포츠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부산 유일 남자골프단을 운영하며 프로선수뿐만 아니라 유망 학생선수 후원과 육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엄기섭 한진물산(주) 대표이사
5,000만 원 기부**

엄기섭 한진물산(주) 대표이사가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으로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해 10월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아 100년 동행 감사와 전진의 밤' 현장에서 발전기금을 약정했던 엄 회장은 지난해 11월 5일 승학캠퍼스 총장실을 찾아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동아대 화학과 출신으로 지난 2008년 동아대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엄 대표는 현재 동아대 명예박사회장을 맡아 우회(友會) 증대와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엄 회장은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는 길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업을 키워왔기 때문에 발전기금 약정을 바로 실행에 옮겼다"며 "어려운 시기에 동문들의 잠재력을 모을 수 있는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이 모교 발전에 균분을 댈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동아법조동문회
1,000만 원 기부**

동아법조동문회(회장 김백영 법무법인 삼덕 변호사)가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아법조동문회는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시 티뷰페에서 열린 '동아대학교 법과대학·법조동문회·지우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서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동아법조동문회는 동아대 출신 법조인 모임으로 판·검사와 변호사, 경찰 간부 등 공직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차기 회장은 권기우 법무법인 구덕 대표변호사가 맡게 됐다. 한편 이날 행사엔 동아대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 60여 명이 참석, 지난해 법원행정고시에 최종합격학 동문 3명에게 격려상을 수여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동아원골프회
1,000만 원 기부**

학부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모임인 동아원골프회(회장 권임영)가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아원골프회는 법학부 출신인 권 회장을 비롯해 김백영 법무법인 삼덕 대표 변호사, 이병욱 (주)미래터윈 대표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원골프회는 2018년 초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 김재진 경동건설(주) 회장, 정순택 전 청와대 교유문화수석 등 주요 동문 50여 명을 초청, 김해 가야CC에서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등 애교심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기부금 모금을 결의한 바 있다.



**이동욱 NC 다이노스 감독
2,000만 원 기부**

이동욱 NC 다이노스 감독이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1,000만 원과 야구부 발전기금 1,000만 원 등 모두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체육학과 93학번인 이 감독은 동아대 야구선수로 활동하던 지난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피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으며 1997년 KBO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롯데 자이언츠 구단 지명을 받았다. 2012년 NC 창단 멤버로 영입된 이 감독은 지도자 능력을 인정받아 2018년 10월 NC 2대 감독에 선임되며 '젊은 지도자 바람'을 일으켰다.



**이흥규 천세철강(주) 대표
2,000만 원 기부**

부산·경남·울산지역 대표 기업인 모임인 (사)동아비즈니스포럼(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제53회 포럼을 지난 1월, 부산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선 이흥규 천세철강(주) 대표가 학교 사랑 캠페인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2,000만 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사)동아비즈니스포럼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한석정 총장은 "2020년 시작에 맞춰 열린 동아비즈니스포럼에서 뜻 깊은 발전기금도 전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 기업인들이 교류하는 이 자리에서 소통하는 기쁨과 함께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우 대신금속 대표
1,000만 원 기부**

이성우 대신금속 대표가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해 11월 승학캠퍼스 총장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엔 한석정 총장과 이 대표, 황규홍 대외협력처장, 박수남 대한민국 ROTC 부산지구 총동문회장(제24대 동아대 ROTC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동아대 전자공학과 73학번이자 ROTC 15기 출신인 이 대표는 제18대 동아대 ROTC 총동문회장과 제26대 대한민국 ROTC 부산지구 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동아 100년 동행 감사와 전진의 밤’ 행사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밝히며 “동아대 ROTC 역사관 설립기금으로 모교 사랑을 표현했었는데,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캠페인에도 동참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박해성 변호사
1,000만 원 기부**

‘합동법률사무소 로운’ 박해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그는 동아대 법학부 05학번이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5기 출신인 동문 변호사로 최우용 법학전문대학원장과 함께 승학캠퍼스 총장실을 찾아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명과 법무법인 정를을 거쳐 합동법률사무소 로운(부산 사하구 하단동)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특히 합동법률사무소 로운은 각 분야 전문변호사들이 합심해 만든 법률사무소로 박 변호사를 비롯해 김규범(법학부)·정가은(로스쿨) 변호사 모두 동아대 동문이다.

**경영대학
릴레이 기부**



김영구 한라HMS(주) 대표이사,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22호 기부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한 동아대 경영대학의 ‘다우리스트 고액 릴레이 기부’ 22호 주자로 김영구 한라HMS(주) 대표이사가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1984년 동아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김 대표는 동아대 MBA(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38기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승학캠퍼스 총장실을 방문해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하태권(주)서영 회장,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23호 기부

‘다우리스트 고액 릴레이 기부’ 제23호로 하태권(주)서영 회장이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2005년 동아대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은 하 회장은 지난해 11월 부민캠퍼스 총장실을 찾아 한석정 총장과 최형림 경영대학장에 게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하 회장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나갈 인재 양성을 위해 발전기금이 소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무제 석좌교수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대법관 역임 후 지난 2004년부터 모교에서 후학을 기르고 있는 조무제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청백리의 대명사’ 조 석좌교수는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과 장학금,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등 모두 1억 8,800여 만 원을 우리 대학에 기부했다. 특히 석좌교수로 임용된 뒤 급여에서 50만 원씩을 매달 발전기금으로 내놓다 지난 2017년부터 100만 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평소 기부 사실이 알려지는 걸 꺼려해 조용히 기부 활동을 펼쳐온 조 석좌교수의 이번 발전기금 기부는 ‘법학 명문’ 동아대학교 로스쿨의 웅비(雄飛)를 염원 하는 뜻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대학원 AMP(최고경영자과정) 제53기 5,000만 원 기부

동아대 경영대학원은 최고경영자과정(AMP) 제53기 수료식을 지난 1월 8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열린 이날 수료식엔 한석정 총장과 최형림 경영대학원장, 신정택 총동문회장, 옥기문 AMP동문회장, 수료생과 가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수료식에선 모두 41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특히 이승규 53기 원우회장을 비롯한 원우 일동은 대학 발전기금 5,000만 원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MBA 51기 졸업생들 1,500만 원 기부

동아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과정(MBA) 51기 졸업생(원우회장 윤경로)들이 학교 발전기금 1,500만 원을 기부했다. 51기 졸업생 일동은 지난해 8월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열린 ‘2018학년도 후기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수여식’에서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엔 윤 회장 등 졸업생을 비롯 조용언 경영대학원장, 강호철 MBA동문회 수석 부회장 등 모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안시정 진양포밍(주) 회장 1,000만 원 기부

안시정 진양포밍(주) 회장이 학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해 8월 승학캠퍼스 총장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엔 한석정 총장과 안 회장, 황규홍 대외협력처장, 조용언 경영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영대학원 MBA(경영학석사과정) 34기 출신으로, 제15대 MBA동문회장을 역임기도 한 안 회장은 부산지역 철도장비 제조업체 진양포밍(주)을 운영하고 있다.



이부영 수학과 교수 1,000만 원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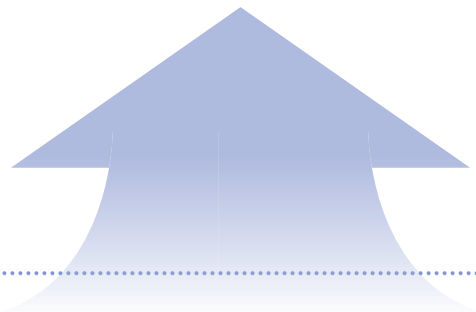
이부영 수학과 교수가 대학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에 정년퇴임한 이 교수는 지난 1월 박상원 자연과학대학장과 함께 승학캠퍼스 총장실을 찾아 발전기금을 전달, “학과 실습실 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실습과 취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아대 수학과 73학번으로 지난 1983년부터 후학을 양성해온 이 교수는 도서관장과 교육대학원장, 대외협력실장, 비서실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모교 발전에 힘써왔다.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동아 미래인 양성’과 ‘동아 지식허브 조성’, ‘미래교육관(동문관) 건립’ 등을 대학 경쟁력 강화 목표로 설정, 교직원·학생·동문 등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속과 참여로 펼쳐지는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전통 동아의 명성 재확보 및
지역을 품고 세계와 함께 하는 명문 사학으로서의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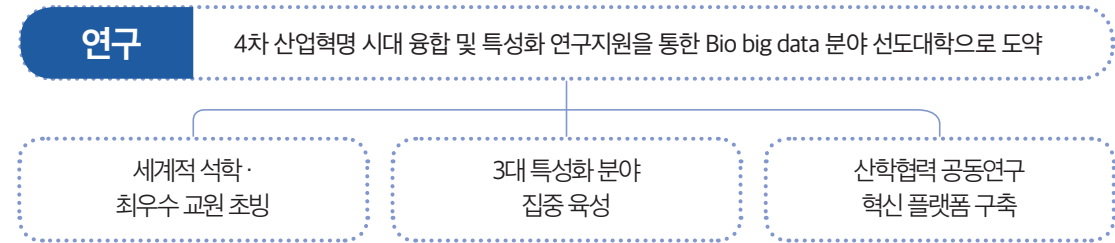


캠페인 1단계 목표

완료	완료	추진
동아 교육 혁신	교육인프라 구축	연구
<p>동아젠들맨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형 교양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동아젠들맨 양성 • 융합형 전공교육과정 신설 • 미래형 스마트 러닝 시스템 구축 	<p>미래교육관 건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교육 전용 공간 마련 • 동문 명예의 전당 조성 • 지역과 문화 인프라를 공유하는 지식의 허브이자 동아의 랜드마크 구축 	<p>우수 교원 확보 연구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석학 교수 및 최우수 교원 초빙 • 3대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 산학협력 혁신 플랫폼 구축

동아 100년 동행, 이제 미래를 향해 전진합니다.

지난 시간 동아는 미래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 양성의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묵묵히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교원들을 영입하고 연구에 집중 투자해 동아의 미래 발전을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캠페인 기부참여 안내

- 무통장입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신 후 입금내역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 동아대학교(발전기금)
부산은행 029-01-027228-1 농협중앙회 944-17-004326
국민은행 118201-04-168318
- 온라인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약정서에 가입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문의** Tel : (051)200-6012~3 Fax : (051)200-6015 http://fund.donga.ac.kr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이란



동아대학교의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발전기금을 후원해주는 모범업소를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선정합니다.

가입대상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가입 시 혜택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연말 세금감면용 기부 영수증 발급 |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 감사 난 발송
교내외 각종 행사 안내 및 초대권 발송 | 매년 명절 쌀·감 등 소정의 기념품 발송 | 매년 동아대학교 달력 발송
본교 소식지 및 동아대학보에 홍보 | 발전기금 홈페이지 '후원의 집'에 등재 | 후원의 집에서 실시하는 각종 이벤트 홍보
전체 교·직원 대상 홍보메일 발송

신규 후원의 집 소개

제187호

장시영살롱드뷰티
장시영살롱드뷰티는 승학캠퍼스 앞에 위치한 토탈 뷰티샵입니다. 우리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뷰티샵으로 헤어, 메이크업, 네일, 왁싱, 속눈썹 등 고품격 뷰티 시술을 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536번길 8 ☎ 051-203-8004

제190호

콩볼 동아대점
승학캠퍼스 입구에 위치한 콩볼 동아대점은 10여 년간 학생들의 사랑을 받아온 맛집입니다. 특허받은 흑마늘 콩나물과 불고기의 환상적인 조화로 건강과 행복한 맛을 느껴보십시오.
☎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516번길 55 ☎ 051-904-2211

제188호

여명여행(모두투어)
여명여행은 우리 대학 동문이 직접 운영하는 모두투어 공식예약센터입니다. 해외여행 뿐 아니라 국내여행, 골프여행, 크루즈 등 개인별 맞춤형 여행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 사하구 다대로 435, 4층 ☎ 051-266-0234

제191호

소담
구덕 꽃마을에 위치한 소담은 오리요리와 곤드레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지역식당입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구덕산 등산에 소담의 건강한 요리와 함께 하세요.
☎ 부산 서구 엄광산로39번길 18-3 ☎ 051-254-1022

제189호

굿치과의원
환자를 먼저 생각하여 정성을 다하는 치과. 당리역 4번출구 앞에 위치한 굿치과의원은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진료를 제공합니다.
☎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07 ☎ 051-203-2828

제192호

우송정
우수한 품질의 암소한우만을 취급하는 한우 전문점입니다. 고소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암소한우구이에 정갈한 음식은 가족외식은 물론 회식에도 적합합니다.
☎ 부산 사하구 제석로18번길 75 ☎ 051-202-5570

가입문의 Tel : (051)200-6012~3 Fax : (051)200-6015
E-mail : nwaxe@dau.ac.kr Homepage : http://fund.donga.ac.kr
※ 전화문의 또는 가입신청서 작성 후 우편이나 FAX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기부안내

동아의 74년, 20만 동문의 기부로 100년의 역사를 향해 도약합니다.

동아사랑 1인 1계좌 참여운동



'동아사랑 1인 1계좌'는 매월 소액(1만 원)으로 동아 발전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정기기부 운동입니다.

※ 1계좌당 1만 원이 기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계좌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네이밍 도네이션



우리 대학의 건물, 강의실, 연구실, 실습실 등에 기부자들의 아호를 명명해 새기고 있습니다. 동아의 역사와 함께 할 뜻 깊은 기부를 기다립니다.

장학기금 및 기타 목적기금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부목적용 장학기금, 학과 발전기금 등으로 지정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정 기부 시 기부금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기부방법

무통장 입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신 후 입금내역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 동아대학교(발전기금)
부산은행 029-01-027228-1 농협중앙회 944-17-004326 국민은행 118201-04-168318

방문납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외협력처(본부건물 3층)로 내방하셔서 직접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공제 교직원에 한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CMS납부 CMS는 동아대학교가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 출금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송금 수수료가 없습니다.



약정방법

약정신청 전화 혹은 방문해주시면 발전기금 약정과 납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약정은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약정서에 기입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Tel : (051)200-6012~3 Fax : (051)200-6015

Homepage http://fund.donga.ac.kr

우편 우)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대학본부 3층 313호)